



경력

1951년 2월 26일 경남 출생
서강대 영문학과 졸업
아케트대 영문학(석·박사)
현재 - 중앙대 영문과 교수
서울 문화 이론 연구소 소장
민교협 정책위원장

□ 대학의 이념시리즈(完) - 민교협 정책위원장 강내희 교수 인터뷰

큰 옷을 벗고 다양화 특성화된 대학 추구해야

대학, 사회 지식 혁신과 민주사회 발전의 견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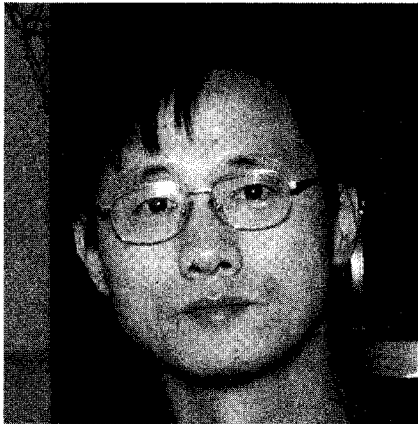
〈글심는 순서〉

1. 시대와 사회체제에 따른 대학의 이념 및 가치변화
2.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념

대학은 학자와 학생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상호 보완하며 진리를 터득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학이 항상 본질적으로 학문 탐구의 장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대학은 시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역할이 바뀌어왔고 그에 따른 이념과 의무 또한 변해 왔다.

현재의 대학들은 또 다른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IMF 체제라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학이 정립해야 할 이념들을 알아보고자 중앙대 영문과 강내희 교수를 만나보았다.

현재의 대학은 IMF 체제 속에서 실용주의 학문추구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 취업에 용이한 실용 학문이 강조되고 있다. 학문은 생산성을 가져야 하며 생산성 없는 학문은 발전할 수 없다. 실용주의 학문에 편중되어 있는 현 대학의 모습에 대해 강내희 교수는 '현재의 대학이 실용 학문에 치중돼 있다고는 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기초 순수학문을 도외시



하는 실용 학문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라며 기초 순수학문의 토대를 중요시 했다. 기초 순수학문의 토대와 함께 실용학문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야 한다. 학문의 실용성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학문 전반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대학이 사회에서 가지는 본질적인 역할은 사회의 지식을 생산, 관리, 보존, 전파하는 것이다. 과거의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대학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민속을 답습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축적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파·전수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은 기술, 능력, 이념을 활용해 사회에 진출할 고급인력들에게 기초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강교수는 지금의 대학은 지식의 혁신, 전승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은 사회적 기능인 고급인력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대학의 교육은

기술, 능력, 이념을 활용해

사회에 진출할

고급 인력들에게 기초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학력 노동자를 양산해 내고만 있는 것이다. 대학은 질적 수준에 관계없이 양적 팽창만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양적 팽창은 고학력 노동자의 과잉 공급을 유발했다. 이는 대학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 편중화를 초래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구당 대학생 수가 많다. 단순한 수적 증가는 대학의 발전이 아니다. 학생 수는 많지만 대학생 개개인의 지식 능력은 낮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역량을 떨어뜨린다. 대학은 경제적인 경쟁력에 치중하여 외형적인 조직 확장에만 급급해왔다. 또한 IMF로 인해 각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대학 이념의 부재를 낳았으며 대학이 사회에서의 본연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지금의 대학은 올바른 학문발전전략, 교육전략이 없다. 대학들이 운영에 있어 무능력한 재단과 교육부에 의해 비도덕적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다. 또한 학생도 문제다. 대학생들

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자세 보다는 수동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강교수는 '대학은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학문의 다양성이 없다면 아집과 몇몇 관점만 횡행할 가능성이 있다. 분과화문제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인기 학과만 생존하게 된다. 대학의 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인기가 없는 학문 분야도 연구 중심 체제로 편입시켜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 대학은 학과만으로는 존립할 수 없다. 지금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학부제는 대학 개혁의 한 방법이다. 이는 대학이 생존하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학과를 없애고 학부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부제 대학과 학과제 대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학 커리큘럼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교수는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교수는 대학의 다양화와 작은 대학의 실현 그리고 각 대학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대학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소위 일류대 출신들이 교수직을 독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획일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대학들은 학문을 단순 재

생산할 뿐이다. '작은 대학'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작은 대학은 새로 설립되거나 현재의 종합대학에서 떨어져 나와 전문성을 갖고 한 분야의 연구를 특성화할 수 있는 대학이다. 작은 대학은 규모는 작지만 영역별 특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대학이 각기 내세울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지과학이나 여성학 또는 사회복지 등을 특성화하고 대학내 각 학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과나 학부의 연구활동에 대한 대학 본부나 교학과 등의 신속한 행정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능한 인재란 잘못되고 왜곡된 사회를 바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태도와 창조적인 사고, 생산적인 행동도 갖춰야 한다.

'대학은 노동자가 모인 곳이 아니다. 사회의 지적·도덕적 능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대학 지식의 전파·혁신은 민주사회 발전을 가져온다. 민주사회 발전은 인류가 대동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교수는 말한다.

대학은 한정된 세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함으로써 세 세상을 넓히고 열린 세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천된 것들이 학생을 통해 올바르게 확산, 전달되고 목적인 바대로 실천된다면 대학의 이념, 본연의 의무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정 기자)

□ 선진 서구사회의 대학 운영 실태

객관적 교수 임용, 연구풍토 조성이 대학 위상정립 관건

'서구의 대학들은 어떻게 오랜 세월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단국대 부도사태 이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의구심은 결국에는 '우리의 대학과 서구의 대학은 어떤 이유로 차이를 보이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든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루이틀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과거 오랫동안 대학 내의 문제로 뿌리박혀 있던 것이 이제서야 하나씩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임용 비리 사건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수임용문제는 심각하다. 교수임용은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이기에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교수임용에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교수임용위원회는 전공분야의 업적을 평가한 후 시범강의를 통해 그 과목의 합당 여부를 따진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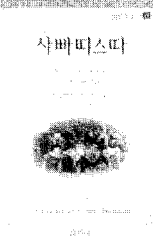
의 자격은 박사 학위수여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별도로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교수박사 논문을 제출해야만 한다. 정·부교수의 자격 또한 엄격하다. 박사학위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교수임용위원회의 합격을 받았더라도 정교수로서 강의, 세미나를 주축할 수 없다. 교수임용에 있어 객관적인 절차와 정·부교수의 엄격한 분리는 독일 대학 강의의 질을 효율적으로 높인다. 요즘 새로이 등장한 대학의 의무는 대학이 소속된 지역사회에 얼마나 봉사하느냐 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울타리가 높게 둘러쳐져 있다. 반면 미국의 대학은 대학과 지역 마을과의 경계가 뚜렷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즉 대학은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융화되어 있으며 대학은 성과물을 바로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지역 사회 봉사는 대학의 위상 및 가치를 정립시키기에 충분하다.

독일(U. Bremen)에서 공부한 정경대 경영학과 박기안 교수는

'독일은 대학 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풍토를 조성해 주고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고 교수는 동기만 부여하는 것이 대개 교육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생이 자유로이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학생은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며 학생들의 수동적인 태도를 지적한다. (학술부)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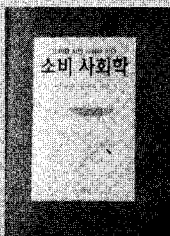


사빠띠스타(ZAPATISTA)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 사빠띠스타 행동위원회의 일원인 해리 클라버(텍사스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의 정치 논문 모음집. 이 책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에 맞서 94년 1월 1일 멕시코의 치아파스 주에서 봉기한 사빠띠스타 투쟁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밝힌다. 해리 클라버 지음, 김두리 펴냄

소비 사회학

유엔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술하고 있는 이 책은 소비에 따른 소비의 의미 및 소비 유형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라는 변화의 지침'인 기본 문서들, 리우 선언,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의 관련 부분을 번역해서 부록에 실고 있다. 송보경 지음, 집현전 펴냄



경희발전기금 출원내역 및 명단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8.3.14 ~ 3.20)

- ▲김영환(국회국무위원회) 1천만원
- ▲정현중(사무처 관리과 영산계장) 1백만원
- ▲박재현(평화복지재단 이사) 94만원
- ▲남성우(관비과 기능직) 54만원
- ▲안영규(관비과 기능직) 54만원
- ▲고서현(관비과 기능직) 54만원
- ▲김우기(관비과 기능직) 54만원
- ▲오세용(관비과 기능직) 54만원

- ▲조용호(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87,000원
- ▲이상국(대학재무처) 27,770원
- ▲김종현(원리과학과 학의학과 교수) 48,810원
- ▲김영환(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61,610원
- ▲김정우(체육대학 체육학과 교수) 40,500원
- ▲정영식(관비과 원예사) 55,160원
- ▲손배현(대외협력실장) 21,770원
- ▲유준근(정보통신과) 2,620원
- ▲신준식(98기계공과) 8,490원
- ▲고상도(98기계공과) 3,000원
- ▲김현식(98기계공과) 2,770원
- ▲신기훈(98기계공과) 2,870원
- ▲오현민(98기계공과) 3,340원
- ▲류영준(98기계공과) 2,890원
- ▲배용호(98기계공과) 4,190원
- ▲최영식(98기계공과) 11,160원
- ▲김영민(98기계공과) 3,500원
- ▲정영식(98기계공과) 5,930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대학생 여러분의 가족생활 고민을 도와드립니다!

1. 상담내용 : 가족갈등, 이성관계, 결혼전 문제, 부모-자녀관계, 부모관계등
2. 교육내용 : 결혼준비교육, 갈등해결 방법,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
3.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후1시~ 오후5시
4. 상담비용 : 무 료
5. 예약 및 전화 문의
월요일 - 금요일 오전9시~ 오후5시
☎ 960-1618(Fax검음)
6. 장 소 : 가정대학 4층 가족상담실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부설
가족 문제 상담 · 교육센터

가슴을 펴시다. 밝고 넓은 세계를 향해. 국제교류센터(CIE)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선발

1. 파견국가 : 미국 6명, 영국 3명, 캐나다 1명, 호주 5명, 노르웨이 2명, 중국 4명
2. 접수기간 : '98년 3. 16(월)~3.31(화)
3. 파견기간 : 1998학년도 2학기
4. 지원자격
①3학년생 이하 재학생 또는 석사과정 1기 대학원생
②영어권 지원자 : 최근 2년내 외국어 성적 TOEFL(550점이상), IELTS(6.0이상) 소지자
③전학년 평점 3.0 이상인 자

5. 선발방법 : 어학능력 및 면접 평가
6. 원서교부처
①서울 : 국제교류센터 담당 최미경
②수원 : 장학복지과(0331-201-2021-3)

*선발일정 및 인원은 자매교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교원교비해의연구과자선발

1. 신청접수 : 3.30(월)~4.6(월)
2. 파견기간 : 1998. 9. 1~1999. 8. 31
3. 선발심사 : 4월 중순
4. 선발인원 : 0명

■일본 日本대 어학연수단 선발

1. 파견대학 : 일본 日本대(Nihon Univ.)
2. 접수기간 : 1998. 3. 16(월)~3.27(금)
3. 파견기간 : 1998. 6. 1~7. 31(9주간)
4. 모집인원 : 6명
5. 지원자격 : 본교 재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6. 선발방법 : 성적, 면접, 선발시험
7. 선발 일본어능력시험 : 4.6(월) 11:00
8. 파견조건
①수업료 면제
②숙박료 : 약60,000원(9주간, 본인부담)
③기타 : 항공료, 현지교통비, 식비 본인부담
9. 교육내용 : ①일본어 ②일본사회 및 역사

Toward the Globalized Kyunghee. CIE is ready to help you. Just Click!
국 제 교 류 센 터

'98.피보험자 건강진단 안내

1. 실시대상
가. 피보험자 건강진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로서 건강진단 실시일 현재 피보험자자격유지자
나. 암검사
-위장, 결, 직장 : 40세이상 피보험자 중 희망자
-유방 : 여성 피보험자 중 희망자
-간장 : '98피보험자 건강진단 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희망자
다.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
-간염검사 : 50세 미만 피보험자(건강진단시 포함)
-예방접종 : 간염검사 결과 항원 및 항체 음성자

2. 실시기간
가. '98. 4. 1. ~ 9. 30(암검사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확인

규칙적인 생활로 준공증을 이깁시다.

봄이 오면 늘 찾아오기 마련인 춘곤증.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면 서 몸이 나른하기만 합니다.

- 춘곤증을 이기려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
-당분간이라도 과음과 흡연을 삼가는 등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질병이 많은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식생활에도 신경을 써야
-채소, 과일, 무기질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고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해 비타민 보충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나물로 식단을 꾸미는 것도 좋으며 아침에는 생선·두부 등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도 춘곤증 극복의 한 지름길입니다.
-적당한 운동도 예방책
-몸을 펴고 늘려주는 체조와 산보 등의 간단한 운동은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 료 보 험 관 리 공 단

재 학 생 입 영 연 기

고등학교재학생과 학교별 제한연령 아래에 졸업 가능한 각급대학(원)재학생은 19세에 수검한 후 졸업까지 자동 입영연기(졸업후입영)

●학교별제한연령

구 분	2년	3년제	4년	6년제	의·치 한·의대	2년제	5.6 학기제
연 령	22	23	24	26	27	26	27

- 휴학자 및 동급대학(원) 편·입학자도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하면 입영연기
- 21세 대학입학자는 1학년 수료시까지 입영연기
- ◆재학생에 입영을 희망 할 경우
-대학 재학생(입영부류처분자 포함)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휴학하지 않고 '재학생입영(소집)원'출입
-입영통지서 수령후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휴학 절차 밟고 입영
- ◆출원절차
-본인이 재학생입영(소집)원에 입영희망시기(현역:입영희망일, 보충역:입영희망분기)를 기재하여 시·구·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
-지방병무청으로 송부되면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에 맞추어 입영통지 한다.
*전역 뒤 학업공백없이 복학 하려면 입영을 희망하는 해의 전년도 10월말일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해야함
(입영희망일을 1, 6, 7, 12월 등으로 기재)

정병검사장 공개(참관)안내

●수검장정의 부모, 가족, 친지, 친구 등 누구나 정병검사장을 참관할 수 있으며, 수검장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병검사장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병무청 정병검사장에는 참관하는 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체검사장 중앙에 별도의<참관인실>을 설치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